'신한데이 이벤트' 진행 페이코로 3만원 할인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간편결제·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서비스 관련 혜택을 강화한 '신한Day(신한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매월 운영 중인 신한데이는 고객이 자주 찾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신한데이 행사에서는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와 연계한 할인을 제공한다.

먼저 페이코를 통해 신한카드로 결제 시 아이허브, 현대식품관 등 총 20여개 온라인몰에서 최대 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한카드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면 10% 할인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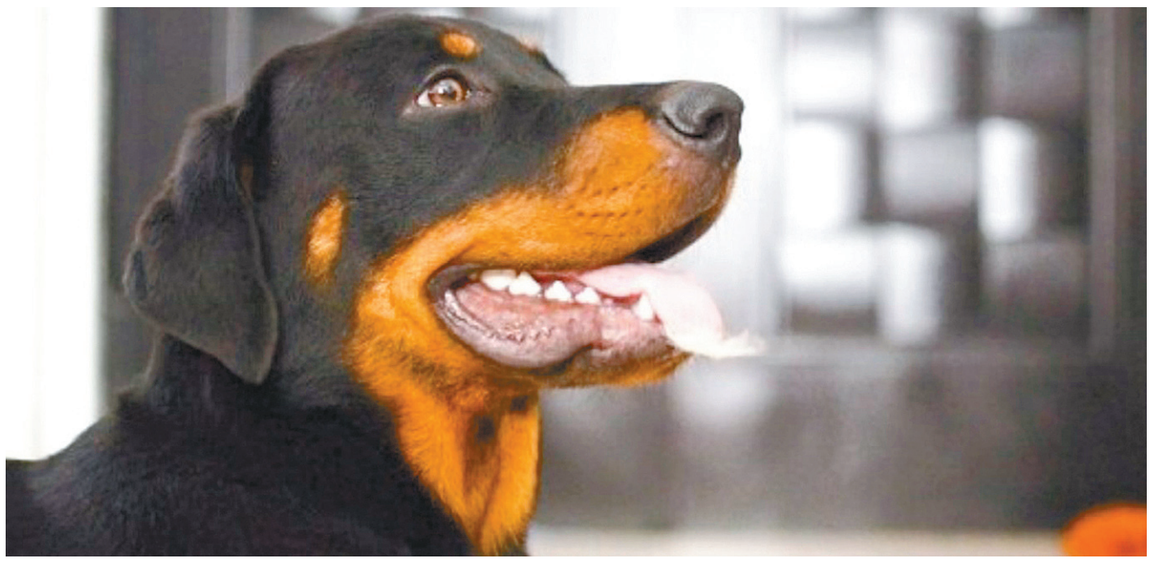
또한 신한카드를 다양한 간편결제에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 '간편결제 다모아서비스'를 통해 신한카드를 등록·이용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와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한데이 이벤트를 디지털 결제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맹견보험 의무화 됐지만… 가입 저조한 이유는?

애견협회, 맹견 5천여 마리 추산… 하나·농협손보 합쳐 900여건 불과
'우리 개 안전하다' 의식 '만연'… 적발 어려워 버티기 돌입 지적도
미니보험 수준 보험료 대비 배상책임 금액 최대 8천만원… 보험사 부담
"견주 인식 개선 및 배상 금액 낮춰 시장 활성화 여건 만들어줘야"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사진=시장경제DB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견주들의 가입이 저조한 모습이다.

업계는 보유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배상책임 금액을 낮춰 보험사들이 관련 시장에 부담없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다.

각사별 맹견보험 누적 가입 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하나손보 800여건, NH농협손보 100여건이며, 삼성화재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손보가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지난 1일에 NH농협손보가, 3일에는 삼성화재가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특히 KB손보와 롯데손보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인가를 마무리하고 막판 시스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의무보험이라 대상 맹견종과 회사별 담보 내용에 차이가 없지만, 출시 일정 및 가입 채널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가입 건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일하게 정의했다.

해당 담보 내용 역시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최대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200만원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해당 보장 모두 자기부담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보험료는 다르다. NH농협손보와 삼성화재가 대면판매채널(설계사 등)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연 1만6000원대로 보험료를 책정한 반면, 하나손보의 경우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해 경쟁사 대비 3000원 가량 저렴한 연 1만 3050원의 보험료를 책정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보험 가입 의무일이 초과됐음에도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가입 의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견주들은 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등록된 맹견을 2653마리로 집계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맹견까지 합하면 총 5000여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애견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 속 국내 맹견 수는 기존 등록 수의 2배 가량을 상회할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화재가 관련 수치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하나손보보다 가입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화재의 가입건수를 최대 799건으로 가정해도, 등록 마리수 대비 가입율은 64%, 미등록 맹견까지 합한 마리수 대비 가입율은 3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키 위해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주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개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보유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버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김성현 한국애견협회 팀장은 "맹견은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발달된 턱힘으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습성, 혹 대상이 죽을때까지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 등 단 한번의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맹견 견주들이 반려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맹견 의무보험가입에 다같이 동참해 안전한 반려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배상책임 금액을 낮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대비 배상책임 금액이 최대 8000만원까지 책정돼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 금액을 낮춰 디지털 손보사들까지 해당 시장에 유입될 경우 관련 홍보 및 가입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A YOUNG REBEL LEADER IN CUBA SHOT ON A LEICA





SOFORT INSTANT CAMERA. THE LEICA MADE FOR FUN.
LEICA STORE BOSTON 74 ARLINGTON ST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CHE 체 게바라
Client: LEICA STORE BOSTON 라이카 스토어 보스턴
Agency: ARNOLD WORLDWIDE, Boston
Product CAMERAS 카메라
Copy: A Young rebel Leader in Cuba Shot on a LEICA
쿠바의 젊은 혁명가 라이카 카메라로 담다

열혈 서학개미에 증권업계 "6시를 잡아라"

증권업계 '프리장' 확대
미래에셋대우, 검토·개발 후 이르면 이달 서비스
키움증권도 고객 요구에 7시 확대 운영 예정


여의도 증권가. 사진=시장경제DB

서학개미의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 프리장(정규장 시작 전 거래) 오픈 시간을 오후 6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6일부터 미국 주식 프리장 거래 시간을 기존 대비 2시간 앞당긴 오후 7시부터 앞당겨 제공하고 있다. 기존 오후 9시였던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함에 따라 4시간 30분간 장전 거래가 가능해졌다.

현재 가장 긴 시간 프리장을 운영 중인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오후 6시 프리장 운영 시간을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선점했다.

키움증권 역시 당초 NH투자증권과 동일한 시간대인 오후 6시 거래를 추진했지만 현지 브로커리지 상황에 따라 일단 오후 7시부터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지 사정을 고려해 오는 3월 4일부터는 오후 6시로 추가 확장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도 빠르면 이달 내 프리장 오픈 시간을 오후 6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프리장 거래 오픈 시각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 개발 중에 있다"면서 "2~3월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권가에서 적극적으로 프리장 시간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미국 주식 투자에 열성적인 엄지족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특히 무르익으면서 적극적인 서학개미들에겐 정규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혜택, 분석 보고서 등 서비스는 물론 장외주식 거래 운영 시간까지 증권사를 선택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장전 거래를 통해 시차상의 불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함은 물론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되는 기업 실적 또는 악재 등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상장 기업 대부분이 실적을 개장 전이나 장 종료 직후에 발표하고 있다. 실적 발표 직후나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를 활용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업체별로 상이한 운영 시간을 이유로 증권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일도 종종 이뤄지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니즈도 다양해졌다"면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글로벌 이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kma@newdailybiz.co.kr

"불법 공매도 처벌…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치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고민했는데, 공매도 부분 재개는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매도를 재개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6일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 없이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공모주 청약 배정기회 확대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균등방식 도입 및 중복 청약 제한 등으로 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장기 주식 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일몰제 폐지 및 주식 편입 허용 등 세제지원 개편안을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김민아 기자 kma@newdailybiz.co.kr